

## 『검은 꽃』에 나타난 역사와 허구 - 멕시코를 중심으로\*

고혜선(단국대 스페인어과)\*\*

- I. 서론
- II. 『검은 꽃』과 멕시코 역사
  - II.1. 카스타전쟁
  - II.2. 대농장제도
  - II.3. 농장노동자
  - II.4. 포르피리아토
  - II.5. 멕시코혁명
- III. 등장인물: 역사와 허구의 경계
  - III.1. 조선이주민
  - III.2. 멕시코농장주
- IV. 결론

### I. 서론

한국의 역사소설은 근대문학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3년에 발표된 박종화의 단편 『목 매이는 여자』를 기점으로 출발한 역사소설은 홍명희의 『임궏정』, 이광수의 『허생전』과 같은 한 개인에 대한 전기,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과 같은 지배세력의 궁중비화를 거쳐, 박경리의 『토지』, 김주영의 『객주』, 조정래의 『태백산맥』

\* 이 논문은 2009년 단국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Hye-Sun Ko(Dankook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hyesunko@hotmail.com), "History and Fiction in *Black Flower* focused in Mexican History".

처럼 일반 민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대하소설로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도 김훈의 『칼의 노래』처럼 영웅을 대상으로 한 역사소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남진우는 『검은 꽃』의 해설 『무를 향한 긴 여정』에서 ‘이들 역사소설이 그 주인공의 외면상의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이를 통어하는 구심적 힘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한국 역사소설은 탄생에서부터 단순한 허구적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전범의 제시 내지 민족수난의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기층민중이란 집단적 주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역사소설이 대거 창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역사소설이 민족국가를 절대시하고 국가의 신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식의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영하 2003, 326<sup>1)</sup>)고 하면서 ‘작가는 역사소설이란 형식을 빌려 [...] 대문자로 쓰인 거대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소문자로 쓰인 작은 역사 이야기에 주목하도록 만든다.’(327)고 주장했다.

김영하의 『검은 꽃』은 구한말 약 1000여명에 달하는 멕시코 이주 한인들의 삶을 그려낸 소설로 그 공간이 한국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미주까지 확장된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주인공들의 삶의 궤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전형적 역사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인들의 이주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공간으로 한 역사적 사건은 임오군란(1882), 동학란(1894), 청일전쟁(1894), 노일전쟁(1905), 식민지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의 군제개혁안(1904), 을사조약(1905), 한일합방(1910)이며, 실존인물로는 조선 이민자들을 멕시코 농장주에게 소개한 네덜란드 상인 존 G. 마이어스, 대한제국 외부협관 윤치호, 대한제국 외부고문 스티븐스, 대륙식민회사 오바 간이치, 샌프란시스코 상인 박만석, 북미총회 대표자 황사용, 방화중, 중국인 허웨이이다. 가공인물은 이주민들로 양반, 중인 출신 관료후손, 군인, 어부, 신부, 내시, 고아, 도둑, 노예 등 당대 사회의 전 계층을 망라한다.

반면 멕시코의 역사적 사건은 유카탄의 원주민인 마야인들의 역사

1) 이 후, 소설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한다.

로 거슬러 올라가며, 식민지 시대, 공화국 시대, 포르피리아토, 멕시코 혁명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과테말라의 역사가 첨부된다. 이들 역사의 실존인물로 언급되는 자는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 과달루페 성모 기적의 후안 디에고, 베니토 후아레스, 막시밀리아노 황제, 포르피리오 디아스, 마테로, 세르단, 카란사, 오브레곤, 오로스코, 비야, 사파타, 과테말라의 에스트라다 카브레라 등이며, 가공인물은 백인후예인 농장주, 마야족 원주민, 농장관리인, 혁명군, 과테말라 게릴라 등으로 당시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하층민, 중간층, 지배층 등의 전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소설은 한반도 및 멕시코의 국내 상황 및 이들을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소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이 왜 존재하지도 않는 부를 추구하러 멕시코로 향했으며,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돌아올 수 없었던 가를 존재하지 않는 꽃의 색깔인 ‘검은 꽃’이라는 제목을 통해 암시한다. 계약이 만료된 1909년, 이들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할 것을 추진하나 불발에 그친다. 동시에 멕시코의 정정불안이 이어지고, 한반도의 상황이 일본의 합병으로 이어지면서 대한제국의 여권으로 출발한 이들은 결국 귀국을 포기해야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들의 귀국 의지는 더욱 약화된다.

고국의 물정을 잘 모르던 멕시코 이민자들은 돌아갈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작은 종이쪽지를 꺼내들었다. 유카탄의 건조한 기후와 오랜 유랑생활로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버린, 그들을 한 달이나 제물포 항구에 붙들어놓았던, 대한제국 정부가 발행한 조약한 여권들은 이로써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243).

본고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역사소설의 차원에서 이 작품에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 특히 1905년 이후 주인공들의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는 멕시코 역사와 사건이 실제 역사와 어떤 차이를 갖으며, 사실과 허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중심으로 조명할 것이다.

## II. 『검은 꽃』과 멕시코 역사

『검은 꽃』의 역사적 사건은 1905년에서 1920년 사이에 한국과 멕시코시티에서 전개된 사건이 중심을 이룬다. 데이븐포트(Davenport 2006)는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사건의 사용은 한 국가의 동질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심층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문화전반의 필요성에 대해 부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과거를 재조명하고, 문화를 평가하고, 당시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 작가가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소설에 담을 때에는 이 사건들을 통해 작가 자신과 독자들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98)고 지적했다. 『검은 꽃』은 구한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들 사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들이 멕시코로 떠나야만 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한반도로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통의 역사를 가진 작가 자신과 한국 독자, 멕시코 독자 간에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소설은 이주민들의 주요 공간인 한반도의 역사를 이들이 제물포를 떠나기 전인 1904년과 1905년의 상황을 사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일례로 극동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러시아의 참패로 끝난 노일전쟁, 멕시코 한인들에 대한 신문기사, 이에 대한 대한제국의 반응, 일본의 외교권 박탈 및 심화된 내정간섭, 제2차 한일협약 체결 등이 그것이다. 반면 멕시코의 역사는 유카탄의 원주민인 마야의 역사, 식민지시대, 공화국시대,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멕시코혁명 종료까지를 포함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 소설에 기술된 멕시코 역사 혹은 멕시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 II.1. 카스타전쟁

한인 이주자들의 주 무대인 유카탄 반도는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한 여타 멕시코 지역과는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지닌 곳이다. 즉, 멕시코 남부인 유카탄이 마야문화에 속하는 반면 기타 지역은 아스테카문화에 속하며, 식민·독립과정 역시 상이하다. 식민지시대에 멕시코가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국이었던 반면, 유카탄은 현재의 캄페체, 키타나로, 타바스코와 함께 유카탄 총감부 일원으로, 비록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비교적 많은 자치권을 누렸다. 1821년에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멕시코 대부분 지역에서는 스페인 본토 출신들이 대거 추방당하나 유카탄 주에서는 이러한 추방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지배층인 소수 백인계는 농장주로서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있었다. 독립 후 유카탄은 정치적으로는 멕시코 공화국의 한 주로 출발하나, 1835년 멕시코에 중앙집권적 정부가 수립되면서 유카탄의 자치권이 훼손받게 되자 멕시코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증가되었다. 결국 이들은 1840년 독립을 선언하고 유카탄 공화국(1840-1848)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유카탄과 멕시코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을 낳았으며, 유카탄 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마야인들은 유카탄정부의 군인으로 멕시코정부군에 맞서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마야인들이 소지했던 무기는 전쟁이 끝난 후 반환되어야 했으나 이들은 무기를 반납하지 않았다. 1847년 7월 당시 유카탄 대통령 산티아고 멘데스는 바야돌리드에 있던 마야 족장 하신토 팻의 농장에서 상당량의 무기와 식량이 비축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한다. 그리고 불온한 인물로 간주했던 치치밀라의 마야족 지도자 마누엘 안토니오 아이를 체포해 교수형에 처한다. 이 사건에 분개한 마야인들이 백인들을 살육하면서 시작된 것이 ‘카스타전쟁’이다. 마야인들은 모든 백인들을 살해하려 했으며, 1848년에는 메리다를 제외한 기타 주요 도시를 손에 넣을 정도로 세력이 강화되었다. 유카탄 정부는 미국, 쿠바, 자메이카, 스페인,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나 거부당한다. 유카탄의 멘데스

는 미국의 녹스 대통령(1845-1849)에게 유카탄을 텍사스처럼 미국의 한 주로 받아달라고 주문했다. 녹스는 이 유카탄 의정서를 의회에 회부하나 거부당하며, 이로 인해 유카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은 불가능해졌다. 반면 현재 벨리즈인 유카탄 반도의 남동부를 식민하던 영국은 마야인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독립을 쟁취하도록 고취했다.

지배층인 백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무장봉기는 점차 그 대상을 메스티소와 흑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마야인들은 유카탄 반도 내에서 타 인종 모두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다. 유카탄의 바칼라르에서 자행된 학살로 바칼라르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4천 여명의 백인 및 메스티소들이 당시 영국령 온두라스 지역으로 피신하여 건설한 도시가 코로살이며, 현재 이 도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들의 후손들이다. 전쟁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무기를 소지하게 된 마야인들이 1847년 지배층의 탄압에 대항해서 일으킨 이 무장봉기는 1848년 유카탄이 멕시코 연방국의 일원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게릴라전으로 변모했다. 이 투쟁은 1901년 마야인들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찬 산타 크루스가 함락당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결되나, 인근 치아파스 문제에서 볼 수 있듯, 그 갈등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소설에서는 비록 ‘카스타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명백히 이 전쟁을 가리키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야인들의 독립투쟁은 1847년 절정에 이르렀다. 수만 명의 마야인들이 탄압을 피해 영국령 벨리즈로 달아났고,<sup>2)</sup> [...] 1858년에서 1864년 사이에 무려 33회의 폭동이 있었으며, 한때 이들의 주력이 유카탄의 중심도시인 메리다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벨리즈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 해적들로부터 무기를 사들인 유카탄의 마야인들이 백인 점령지역을 게릴라식으로 공략하여 큰 전과를 올린 적도 드물게나마 있었다. 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 마야인들은 비만 내리면 각자의 옥수수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데 실패하였다. [...] 결국**

2) 실제의 역사와 다른 부분은 검은 색으로 칠함.

쿠바의 용병과 미국이 파견한 군사고문단 백 명이 상륙하면서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연방군이 유카탄의 마야족들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조선 이민자들이 도착하기 불과 사 년 전인 1901년에 이르러서였다(99).

농업이 주업이었던 유카탄에서 마야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특히 반도의 동부는 마야인과 백인의 비율이 5:1로 타 지역의 3:1보다 마야계 주민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인 농장주들의 탄압은 더욱 강했다. 이들의 지도자였던 하신토 팻이 유카탄 정부에 제시한 종전 조건은 첫째, 자신들을 반도 마야인들의 수장으로 인정하고, 둘째, 마야인들이 유희지에 옥수수를 무료로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셋째, 세금을 없애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이 소요사태의 원인이 지배층들의 강제적 수탈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유카탄 정부는 결국 이들과 협정을 맺어 세례와 결혼 때의 세금을 감면하고, 마야인들이 화전으로 농토를 개간하는 것을 무료로 허용하고, 농장주에게 진 빚을 탕감하고, 소지하는 무기를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동부지역 마야 지도자는 유카탄에서 백인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했다. 물론 이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마야인이 아닌 모든 다른 인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독립투쟁적 성격으로 변모하나 처음부터 독립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소설이 말하는 ‘1847년 독립투쟁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수만 명의 마야인들이 [...] 영국령 벨리즈로 달아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마야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 특히 백인과 메스티소들이 마야인들의 살육을 피해 벨리즈로 도망간 것이다.

## II.2. 대농장제도

아빌레스(René Aviles)는 “Revolución mexicana en torno a Yucatán”에서 ‘유카탄은 식민지시대부터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에네켄의 산업화가 발견되면서 유카탄 지역 농장들은 에네켄 농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세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선박 수송은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로 인해 선박용 로프 수요도 증가했다. 따라서 로프의 원료였던 에네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포르피리아토 기간에 유카탄 지역 농장주들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계적 부호로 성장했다. 멕시코의 신성한 카스타로 불렸던 몰리나 주지사 가족은 에네켄 호황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인물이었다.’(210)고 지적한다.

에네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으나 산지였던 유카탄 반도 농장에서는 카스타전쟁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농장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했다. 파디아(Raquel Padilla)는 “Jornaleros agrícolas en las haciendas henequeneras de Yucatán”에서 ‘구대륙의 신대륙 정복이 황금 열병으로 시작되었듯이 외국인들은 초록색 황금이 일순간에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에네켄이라는 신비의 식물에 있음을 알았다.’(136)고 말한다.

『검은 꽃』에서 작가는 에네켄에 대한 식물학적 설명을 곁들이면서 에네켄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과 서구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은 화물운송량 증가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농산품과 같은 1차 산업 품목의 수출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던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방침에 따라 생산량을 증가하려는 농장주들이 조선에서부터 노동자를 수입해야했던 상황을 설명한다. 그러나 디아스의 농장경영정책에 대해 소설 속의 지식인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노동자를 수입해서라도 사탕수수나 에네켄, 치클을 재배하라고 합니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외국인 자본까지 끌어 들여 농장을 경영하게 합니다. [...] 미국인들은 [...] 멕시코엔 값싼 농산품이나 생산하게 하고 자기들은 베라크루스 항에서 그걸 실어다 더 비싼 값으로 유럽에 팔아넘길 테니까. 그 과정에서 [...] 저 대농장의 소

유주들, 멕시코시티의 과학자 그룹들은 떼돈을 벌구요. 결국 미국과 디아스 일당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허덕허덕대다 끝나는 거라구요(199).

이들의 지적처럼 외국인들은 당시 멕시코 땅의 1/5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수에 의한 토지 과점을 추구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소작인의 신분으로 격하되었다.

대농장제도는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었다. 정복자를 따라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한 초기 스페인 사람들의 상당수는 안달루시아 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안달루시아 농지를 둘러싼 아시엔다제도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스페인 왕실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왕의 묵인 하에 식민지의 토지를 수용했으며, 중세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대농장을 운용했다. 카스코(Rosario Casco)는 “Situación política y económica de México a principios del siglo XX: Hacienda desde su origen hasta el principio del siglo XX”에서 헤수스 실바(Jesús Silva Herzog)의 『멕시코 혁명 약사』를 인용하면서 이 상황을 ‘정복이 끝나면서 정복자들은 잔인하고도 혁혁한 전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이 후에도 스페인 출신들은 거대한 토지와 그 토지를 경작할 원주민을 하사받았다.’(84-85)고 언급한다.

독립 후에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토지는 극소수의 손에 있었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개혁과 후아레스의 시도는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오고, 그들이 옹립한 프랑스의 막시밀리아노 황제 역시 총살당하는 등, 1856년에서 1867년까지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심각했다. 1875년에 농지관리법이 제정되나 이것은 오히려 기업형태의 농장의 생성을 조장하게 되며, 그로 인해 1881년에서 1889년 사이 전국의 경작지는 29명의 소유지가 되었다. 토지의 과점현상을 해결하려고 토지소유 상한기준을 낮춘 포르피리아토 기간에는 그 숫자가 50명으로 증가되었다. 소수에 의한 토지과점현상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중세 영주가 태동되며 이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노예상태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Casco 2005, 88).

당시 멕시코에는 목장, 사탕수수, 카카오 농장이 있었으며, 특히 19세기 말에는 에네켄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유카탄의 농장 대부분은 에네켄 농장으로 탈바꿈한다. 『검은 꽃』의 대지주들 역시 ‘멋진 저택을 짓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 하인과 노예들을 부리며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자식들은 유럽으로 유학보내고 주인들은 메리다나 멕시코시티의 쾌적한 부촌에서 생활하다가 가끔 들러 왕노릇을 즐겼다.’(101). 식민지시대에 확립된 엔코미엔다 제도는 원주민의 가톨릭화를 조장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일정 수의 원주민들을 교화시킬 의무를 주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독립 이후에도 이어지며, 농장주는 피지배계층인 농장 노동자들에 대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농장에게는 아시엔다 법이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농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농장주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유카탄에서는 재판장도 농장주요, 검사도 농장주요, 변호사도 농장주다.’(178)라는 소설에서의 지적처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그러나 포르피리아토 체제는 산업 생산 장려와 자본회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에게 부의 분배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경제발전은 있었으나 경제성장은 없었다.’(Casco 2005, 91)라는 평가처럼 포르피리아토 기간에 사회의 빈부격차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 II.3. 농장 노동자

터너(Kenneth Turner)는 *México bárbaro*에서 이들 유카탄 대농장 농장주를 ‘왕’으로 칭했고 노동자들을 ‘노예’로 불렀다. 이들 노동자들은 중국, 한국, 쿠바, 스페인, 야키, 마야원주민 등, 인종적·문화적 구성이 다양했다. 마야인들은 대략 10만에서 12만 5천으로 추산되며, 그 뒤를 8천명의 야किन, 3천명의 중국인 및 한국인이 있었다. 야키족은 식민지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소노라 지역에서 반란으로 체포된 다음 유카탄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

다.’(Padilla 2005, 137). 중국인들은 농장의 일용직 노동자 신분을 일찍이 탈피해서 도시에서 세탁소나 요식업에 종사했다. 소설에서 권용준을 배신한 이연수가 중국음식점에서 겁탈을 당하고 다른 중국음식점으로 팔려갔다는 내용은 중국인들의 주업종의 하나가 요식업임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농장 노동자들의 생활은 과도한 노동, 극심한 저임금 등으로 인해 거의 노예 수준이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이들은 새벽 3시 45분에 기상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주일 내내 일해야 했으며,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제공받았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가혹했으며, 일당은 식료품 값에도 못 미쳤다. 따라서 농장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모든 빚을 갚고 농장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설의 조선인들 역시 유사한 상황 처했다.

애초에 마이어스는 장정에겐 하루에 35센타보, 큰 아이에겐 25센타보, 어린아이에겐 12센타보를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매점에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사는 데만 25센타보가 들었다. 그건 번 돈의 대부분이 먹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였다(107).

농장의 유일한 가게는 농장주의 소유로 물품가격이 농장 밖의 가격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들의 임금으로는 식료품도 제대로 조달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대한 묘사를 보자.

조선 황족의 후예인 이진우는 토요일이 되자 나무표찰을 모아 회계원에게 제출하고 돈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매점으로 가 일주일간 먹을 음식을 샀다. 네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굶다시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113).

농장매점의 횡포는 농장주의 목인 하에 농장감독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조장윤을 위시한 군인들이 대부분 팔려간 첸체농장의 경우를 보면, 노동자를 많이 확보할 욕심에 농장주는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해서 현금이 없었다. 그런 주인의 사정을 헤아린 감독은 늘 하던 방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직영매점의 식료품값을 올리고 애초에 약속한 급료를 깎았다. 이러한 농장주의 착취는 비단 멕시코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지 전체에서 행해지던 일반적인 행태로, 에콰도르의 이카사(Jorge Icaza)도 우아시퐁고(Huasipungo)에서 농장감독이 직영하던 가게가 농민을 상대로 벌이던 만행을 묘사했다. 그는 농장주의 부재와 묵인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무상노역을 강요하며, 자신의 가게의 물건 값을 올림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지배자인 농장주와 피지배자인 농민과 노동자 사이에서 감독은 또 하나의 지배자로 군림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체벌 역시 하나의 관습으로 지속되었다. 감독들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체벌을 가했으며, 농장주의 명을 어긴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휘둘렀다. 소설에 등장하는 부에나비스타 농장주 이그나시오는 ‘사탄’으로 간주한 박수무당을 감옥에 가둔 다음, 감독 후아킨에게서 채찍을 받아 들고 에네켄 더미 위에 던져진 박수무당의 알몸에 물을 적신 채찍을 휘둘렀다.

이들의 지위가 노예라는 것은 농장에서 태어난 노동자의 자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방화중과 황사용이 유카탄의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첼체 농장주 카를로스 메넴을 만났을 때이다. 이들이 조선인 노동자가 마야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데리러 나오려하자 메넴은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한다.

이보시오. 농장에서 얻은 자식은 그 농장주의 것이요. 그 여자가 누구의 것이요? 농장주인 내 것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소. 그럼 그건 누구의 것이요?(239).

이들의 자손이 농장주에게 소속하듯, 이들의 빛도 자손에게로 이어졌다. 소설을 보자.

농장주들은 농민들을 사실상의 채무노예로 묶어두고 영원히 그들을 착

취하고 있었다. 농장주들은 쌀 임금을 준 후 농장 내 매점에서 시내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음식과 물건을 팔아 다시 그것을 거둬들였다. **농민들이 결혼을 하면 주례를 서고 거액의 주례비까지 챙겼다.** 가족이 병들어 치료비가 들거나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 형사사건에 휘말려 돈이 필요해진 경우, 농민들은 농장주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노예가 되었다(107-108).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농장주들이 결혼식 비용을 징수한 것이 되나, 실제로는 결혼과 장례, 세례 등의 교회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 기관은 교회였다. 교회는 이들의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들 역시 권력자의 편에서 농민들을 착취하는 데에 동참한 것이다. 1848년 카스타전쟁 당시 마야지도자 팻이 벨라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들에게 부과된 정부당국의 세금과 교회의 세례, 결혼, 장례 등의 미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팻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고, 동시에 세례성사가 3레알, 혼배성사가 10레알, 기타 다른 미사가 자신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지불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마야원주민의 삶이 편안해 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투쟁을 중단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생결단으로 치달을 것이다.’(Ancona 1889, 411-412)<sup>3)</sup> 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착취가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당국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 II.4. 포르피리아토

조선인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당시 멕시코의 지도자는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1915)였다. 그는 1876년부터 1911년까지 멕시코를 실질적으로 통치한 인물로 그의 독재기간은 흔히 포르피리아토라 불린

3) [...] si aboliera el gobierno la contribución y asimismo que el derecho del bautismo fuera de tres reales, el de casamiento de diez reales [...] la misa según como estamos acostumbrados a dar su estipendio, lo mismo que el de la salve y del responso [...] descansaría todo indio, [...] así es que con sólo lo que manifiesto [...] se retirarían [...] de lo contrario la vida o la muerte decidirá [...].

다.4) 그는 ‘질서와 발전’을 명제로 내걸고 자신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도망자법’을 적용하여 살해했으며, 산업발전을 위해 과학자 그룹을 관료로 임용했다. 이 기간에 미국과 영국 자본을 유치해서 총만 9천 마일에 이르는 철로를 부설하고 전기·전화를 설치하는 등 산업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로 인해 포르피리아토는 일명 팩스 포르피리아토로 불리기도 했다. 소설의 포르피리아토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다.

그의 외자유치는 광업 분야로도 확산되어 멕시코의 상당수 광산이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수출품목 위주의 농산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대지주 및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이로 인해 주요 광산과 농장이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전 농토를 아시엔다로 만든 것이었다. 쉽게 말해 소농의 토지를 빼앗아 대지주들에게 몰아주는 정책이었다. [...] 멕시코 농경지의 99퍼센트가 아시엔다가 되었고 농민 중의 98퍼센트가 제 땅을 갖지 못했다(130).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집권초기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독재자로 변모했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대지주를 지지했으며, 이들을 우군으로 삼아 전횡을 일삼았다. ‘1910년의 통계에 의하면 국가전체의 농장은 총 840개, 농민은 411,096명, 농촌지역 일용노동자는 15,160,369명이었다. 100,000헥타르 이상의 토지주인은 총 840명이었다.’(Casco 2005, 89). 이것은 극소수 대지주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정책을 강화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1900년부터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왔던 디아스는 1908년 2월 <피어스 매거진>의 제임스 크릴맨과의 인터뷰에서 1910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다음과 같이 공언한다.

나는 멕시코공화국 내에 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환영한다. 야당이 출현한다 해도 나는 이것을 죄악이 아니라 축복으로 간주할 것이다. [...]

4) 여기서 1880년에서 1884년까지 Manuel González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은 공식적으로 배제되나, 그가 이 기간에도 실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나는 대통령직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 [...] 나는 이미 일흔일곱 살이며 이것으로 충분하다(221).

그의 이 선언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하며 결국 혁명으로 이어진다.

마데로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마데로는 삼시간에 디아스의 정적으로 성장했다. 디아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집권세력 내부에도 있었다. 후계를 노린 다툼이 본격화됐다. 디아스는 국민을 지나치게 믿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총복들을 시켜 손수 불출마 반대운동을 조직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가혹하게 탄압했다(222).

## II.5. 멕시코 혁명

### II.5.1. 혁명 전야

20세기 초, 멕시코 경제는 은값의 하락, 인플레이, 실업률 증가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포르피리아토 체제에서 중산층의 한 축이었던 지주계급의 불만은 외국자본과 디아스를 에워싼 과학자 그룹을 향했다. 이들은 소규모 모임을 형성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폰시아노 아리아가 자유클럽’으로, 리더들은 유럽의 노동자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 클럽은 곧 디아스의 반대파로 성장했고, 디아스는 이들을 체포해서 해외로 추방시켰다.

그러나 디아스의 불출마선언은 적지않은 정치적 파장을 몰고왔다. 세르단 형제들이 주도한 ‘빛과 진보’ 재선반대 클럽은 1909년 대국민 선언문에서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연장의 위협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했다. 이들은 공화국이 전제적인 형태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구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sup> 소설에서는 ‘빛과 진보’ 클럽 모임의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메넬은 멕시코시티에서 친구들을 만나 정치적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입만 열면 과학, 과학을 떠들어대는 이른바 ‘과학자 그룹’에 대한 성토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지나친 친미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198).

이러한 정치 리더들의 소규모 모임 외에도 공개적인 재선반대 데모가 발생했으며 유카탄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설에 통역으로 등장하는 권용준은 어느 일요일 메리다 공원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집회를 목도한다.

평소엔 한산하던 메리다 시내는 갑자기 수백 명의 인파가 운집한 장바닥처럼 변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연사는 말투나 옷차림, 헤어스타일로 보아 하층민 같지는 않았다. 성공한 부르주아나 농장주쯤으로 보였다. [...] 학생과 시민들은 그의 발언을 경청하며 대목대목마다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연설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 기마경찰이 달려 지나갔다. 몇 대의 마차도 기마경찰의 뒤를 따라 [...] 지나갔다. [...] 기마경찰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한 무리는 그대로 마차를 호위하고 다른 한 무리는 집회장을 덮쳤다. 달아나는 군중들로 광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중들은 그물처럼 얽힌 메리다의 골목길들로 흩어졌다. 기마경찰들도 호각을 불며 자리를 정리할 뿐 더는 추격하지 않았다(193).

1909년 12월 마테로는 세르단과 함께 재선반대당을 결성한다. 그리고 1910년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 마테로, 부통령후보 바스케스 고메스를 선출한다. 마테로는 선거운동 기간에 푸에블라에서 세르단을 만나 1910년 11월 20일에 무장봉기할 것을 요구한다. 마테로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세르단은 멕시코시티에서 무기를 구해 자신의 집에 숨긴다. 11월 17일 푸에블라 주지사는 마테로 일파의 무장봉기 정보

5) [...] la República será salvada no por los hombres acostumbrados a gobernarla en forma despótica, sino por los hombres que no hayan manchado su conciencia cometiendo atentados contra la Ley.

를 입수하고 그 이튿날, 즉 11월 18일에 두 형제를 검거할 것을 명한다. 한편 무장봉기계획이 발각되었음을 감지한 세르단도 거사 일을 역시 18일로 앞당긴다. 이 사건은 소설에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메넬이 아킬레스 세르단의 메모를 받은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1910년 10월 25일 마테로가 미국의 국경도시 샌안토니오에서 무장봉기를 촉구한 때로부터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고, 그가 봉기일로 명시한 11월 20일을 일주일 앞둔 때였다. 열렬한 마테로 지지자이자 메넬의 친구인 아킬레스 세르단은 몰래 본거지인 푸에블라로 들어와 봉기를 준비하며 메넬에게 메모를 보내 거사에 합류할 것을 권했다. 메모에는 물경 500명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몰려들 것이라 적혀있었다. 그러나 역전에는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았다(245).

푸에블라 주지사는 18일 아침 가브리엘 장군에게 30명의 경찰을 주면서 세르단 형제 체포를 명한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세르단의 총에 맞아 사살되고, 그의 부관마저 무장해제 당하자, 주지사는 1000명의 병력을 보내 세르단과 그의 가족, 지지자들을 총살하고 무기도 압수했다. 이 부분을 소설은 이렇게 기술한다.

“오늘 아침 경찰서장 가브리엘이 세르단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둘은 원래 철천지 원수였지요. 수색영장을 들이미니까 세르단이 그대로 썩버렸지요. [...] 경찰하고 주정부군이 쳐들어가서 다 썩 죽였습니다. 세르단의 동생 막시모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고 창고에 쌓여 있던 무기들도 몽땅 압수당했습니다. 미리 와있던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세르단 저택의 학살이 짧게 보도되어 있었다(246).

## II.5.2. 혁명의 전개

마테로를 지지하던 전국의 혁명지도자들은 1910년 샌안토니오에서 작성되어 산 루이스 포토시에서 발표된 마테로의 산 루이스 포토시 문서를 공포한다. 이것은 또다시 불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디아스정부의 전복을 위해 11월 20일 오후 6시에 멕시코 국민 모두가 무

장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혁명세력 모두는 이 안을 지지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북부의 치와와주 파스쿠알 오로스코와 판초 비야, 모렐로스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코아우일라 주지사 출신인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카란사의 휘하부대 장군이었던 오브레곤이 마데로의 지시에 동조했다. 소설의 지적처럼 ‘이들의 군대에는 아시엔다의 노동자, 대학생, 가게의 점원, 수리공, 노새상인, 거지, 광산 노동자, 카우보이, 탈영병, 법률가, 미국인 용병 등이 뒤섞여 있었다.’(250). 파스쿠알 오로스코는 말파소 전투의 승리로 장군으로 승진하며 휘하에 판초 비야를 위시한 여러 대장을 두게된다. 그러나 마데로가 카란사를 신임하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고, 마데로를 살해한 우에르타와 결탁하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이 부분에 대한 소설의 기술을 보자.

코아우일라 주지사 카란사가 우에르타를 몰아냈고 산적 출신의 혁명군 지도자 판초 비야는 정부군을 연파하며 이미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른 살의 에밀리아노 사파타도 게릴라전을 통해 멕시코시티의 코앞을 교란하며 정부군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훗날 멕시코혁명의 흐름을 바꾸고 그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오브레곤 역시 자신의 마요인디언 부대를 이끌고 연전연승하며 상층장군으로 불리고 있었다(255).

디아스의 사임, 마데로의 대통령선출 및 사임, 살해, 우에르타의 쿠데타, 혁명군들의 우에르타에 대한 반발, 우에르타의 사임으로 혁명정국은 혼미했다. 혁명군 부대원들은 소설이 묘사하듯, 때로는 ‘반동 우에르타에게, 때로는 비야에게, 때로는 오브레곤에게 징집되어 참여’(257)했고, 대장들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장 중에서 가장 먼저 멕시코시에 입성한 사람은 오브레곤이다.

1914년 8월 15일, 마침내 오브레곤의 군대가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였다. 용맹스러운 야키인디언 부대가 북을 울리며 대열의 선두에서 자랑스럽게 진군했다(256).

멕시코 북부의 소노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야키족은 식민지시대부터 반란을 일으켜왔으며, 독립 후에도 투쟁을 지속해왔다. 혁명이 일어나자 이들은 비야 혹은 오브레곤 군대에 합류했으며, 이들이 오브레곤의 멕시코 진격에 선발대로 참여한 것이다.

오브레곤의 멕시코 진격 후, 카란사가 도착한다. 그러나 카란사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야와 사파타는 1914년 11월 말 각각 남과 북에서 멕시코시티로 진입한다. 소설을 보자.

사파타의 농민 선발대가 11월 26일에 멕시코시티로 진입하였다. 승리의 나팔소리도 요란한 행진도 없는 조용한 입성이었다. [...] 북쪽에서부터 진군해 온 판초 비야도 12월 4일, 멕시코시티에 입성했다. [...] 북부군과 남부군은 이틀 후 대규모 합동 개선행진을 벌였다(256).

카란사와 오브레곤은 결국 멕시코시티 접수를 포기하고 베라크루스로 향해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세운다.

유카탄 주지사 알바라도는 카란사 지지자였다. 그는 판초 비야와 사파타 군대가 에네켄 밭을 점령하여 군비에 충당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여러 종류의 화폐가 중구난방으로 통용되는 곳에서 에네켄은 그야말로 녹색의 금이었고 동시에 달리 현찰이었다. [...] 주지사는 주저없이 메리다와 프로그레소 인근의 에네켄 밭에 불을 놓으라고 명령했다(265).

졸지에 아시엔다의 전 재산을 잃은 미국인 농장주와 에네켄 수입회사들은 워싱턴에 멕시코혁명 개입을 청원했다. 베라크루스 주변에 미국 함대가 증파되었다(270).

1915년 4월 오브레곤과 비야의 군대가 전투를 벌인 과나후아토의 셀라야에서 최후의 승자는 오브레곤이었다. 오브레곤은 오른팔을 잃기는 했으나 비야의 군대를 패주시키고 카란사를 호위해서 케레타로로 가서 그곳에서 1917년 헌법을 기초한다. 이로써 멕시코혁명은 일단락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검은 꽃』에 기술된 멕시코역사는 사료에

충실하다. 유카탄 마야인들의 카스타전쟁, 농장제도의 기원과 전개, 지배층인 농장주의 행태, 피지배층인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생활, 포르피리아토, 멕시코혁명의 전개는 실존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단, 카스타전쟁의 본질, 벨리즈로 이주한 카스타전쟁의 난민, 농장주가 아닌 교회에 의한 세금수탈에 대한 기술이 역사적 사실과 다를 뿐이나, 역사소설로서의 사료에 대한 충실도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Ⅲ. 등장인물: 역사와 허구의 경계

『검은 꽃』은 한반도와 멕시코 양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등장인물들의 개인사와 접목시킴으로써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역사를 개인화하는 이러한 경향은 위대한 리얼리즘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기의 보편특징이다. 이런 경향은 현대 소설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심지어 이는 거대한 시대적 사건이 줄거리 속에 직접 투입되는 현재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줄거리 상에서 거대한 시대적 사건이 줄거리 자체에 행사하는 기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된 대상세계의 전체복합 속에서 그 사건이 나타나는 현상방식도 바뀌기 때문’(Georg Lukacs 1987, 284)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특히 조선인으로서 멕시코혁명에 참전하는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이주민의 멕시코역사 자기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 Ⅲ.1. 조선이주민

조선인으로 멕시코의 역사적 사건에 활발히 개입하는 인물의 하나가 고아출신 김이정이다. 그의 아버지는 ‘임오년의 군란이었는지 아니면 동학의 난이었는지 모르나 그 중 하나에 휩쓸려 죽었고’(15) 모친에게서도 버림받았다. 여기서 작가는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94년

의 동학란을 동일시함으로써 12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김이정은 이민선 일포드(II Ford)에서 사춘기에 눈을 뜨고 양반집 규수인 이연수와 사랑을 나눈 소년으로 그려지며, 삼년간의 혁명을 거치며 스물일곱 살이 된 청년이다. 멕시코혁명이 1910년에 일어났다면 1913년에 스물일곱 살이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는 1886년생이 된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는 동학의 난 때에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시점은 임오군란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고아로 살아가다가 YMCA에서 미국선교사의 가르침을 받던 김이정은 춘추쿠밀 농장에서 야스체 농장으로, 다시 그곳에서 첸체 농장으로 팔려간다. 그리고 이 마지막 농장에서 조장윤을 위시한 조선인들이 파업을 감행한 어수선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하고 미국으로 향한다. 그가 혁명군과 조우한 것은 멕시코 북부지방 치와와에서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깨달은 김이정은 파스쿠알 오로스코 부대에 합류하고, 후에는 비야 부대에 합류해서 말파소 전투를 위시한 여러 전투에 참여하며 멕시코시티로 진입한다. 이 혁명은 고아출신으로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던 김이정을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뇌를 하는 인물로 탈바꿈시킨다. 그가 일기에 쓴 글을 보자.

국가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혁명이 시작되고부터 이미 멕시코엔 국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두가 각자의 화폐를 찍고 다른 돈을 쓰는 자는 죽인다. 살육이 살육을 부른다. 힘을 가진 자들은 모두 멕시코시티로 진격한다. 그것이 곧 이 길고 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벌써 수십만이 죽었다. 이것은 국가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국가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 더 센 국가가,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지원한다(258).

그의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같은 부대의 동료로 무정부주의자였던 미겔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셀라야 전투에서 비야군이 패하면서 김이정 역시 패잔병으로 유카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과테말라 게릴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병이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테말라 밀립에서 자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옹립하고 유토피아를 실제로 구현했던 고아출신 김이정은 결국 자신의 아들역시 사생아로 만들고 밀립에서 죽는다. 소설의 시작과 끝은 김이정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죽음으로 끝난다.

반면, 이정의 연인이었던 연수를 부인으로 맞이한 박정훈은 베라크루스에 임시정부를 세운 카란사의 최측근이었던 오브레곤의 전속 이발사가 된다. 오브레곤은 군인출신인 박정훈을 혁명군에 참여시키며, 승자의 편에 섰던 그는 혁명 후 상당한 부를 소유해서 연수의 아들을 농장에서 찾아와 입양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혁명대장을 누구로 택했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간 김이정과 박정훈처럼, 조선이민들 가운데에는 종교로 인해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들도 있다.

충청도 바닷가마을 출신 박광수 바오로 신부는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의 자살로 신부직을 버리고 이민선에 승선한 경우다. 소설에서는 그를 말레이시아 페낭의 신학교로 보내 사제로 만든 이가 **시몬 블랑쉬 주교**로, ‘그는 1880년 중국 텐진을 떠나 백령도에 상륙, 선교 활동을 벌이다 황해도 백천에서 체포되었으나 민씨 정권의 개국책으로 석방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8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었다.’(21)고 그린다. 실제로 소설의 블랑쉬와 유사한 이름의 주교가 있었다. 그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블랑 신부(M. J. G. Blanc 1844-1890)로,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자 말레이시아 페낭에 신학생 파견을 재개시켜 1882년에서 1884년까지 한국 신학생 21명을 파견했다. 1884년부터 1890년까지 제7대 조선교구장이었으며, 1886년 한국-프랑스 수교조약이 체결되고 선교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1887년에 서울에 자체 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그의 성은 블랑쉬가 아니라 블랑이며 그의 이름 역시 M. J. G.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시몬이 될 수 없다. 그의 뒤를 이은 주교가 구스타브-찰스-마리 뒤텔 주교로 『뒤텔 주교일기』의 저자다. 그는 1876년에 사제서품을 받아 한국에

파견되었고, 1880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1890년에 블랑 주교의 후임으로 제8대 조선교구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1880년에 백령도에 상륙, 선교활동을 벌이다 **제8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된** 소설 속의 시몬 블랑쉬 주교는 실제로는 7대 교구장인 블랑주교와 8대 교구장 뤼텔주교의 행적이 합쳐진 인물이 된다.

박광수는 광적인 가톨릭 신봉자인 이그나시오의 부에나비스타 농장에 팔려가며, 그곳에서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신과 무속의 신 사이를 오간다. 결국 박수무당에 의해 신내림까지 받게 된 그는 이로 인해 배교를 하고 가톨릭 광신도였던 부에나비스타 농장주의 학대에 시달리며, 후에는 과테말라 티칼 신전에서 죽음을 맞는다. 반면 이민선에 오르기 전에 박광수 신부에게서 십자가를 훔친 도둑 최선길은 박광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 역시 부에나비스타 농장에서 일하면서 가톨릭신자로 개종함으로써 농장주의 오른팔로 살아간다. 동족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서고, 농장주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최선길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농장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매달리는 형벌로 생을 마감한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예수와 도둑 바라바스의 십자가 처형을 연상시킨다.

### III.2. 멕시코 농장주

신대륙을 향한 스페인인들은 황금과 영광을 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북부유럽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로 가톨릭의 전파를 지상의 명제로 삼고 있었다. 『검은 꽃』의 농장주들은 이러한 정복자 혹은 모험가들의 후예로, 한쪽은 황금과 명예를 좇았고, 다른 쪽은 종교적 맹신을 좇은 인물로 그려진다.

프랑스 남서부 바스크 출신의 건달로 묘사된 카를로스 메넴의 아버지 조르주는 멕시코 보수파들이 황제로 모셔온 막시밀리아노 일행과 함께 멕시코로 이주한 인물로, 막시밀리아노가 총살당하고 나폴레옹 3세가 철군명령을 내리자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의 연대 본부에 보관하고 있던 금을 훔쳐 부대를 떠났다. 본문을 보자.

그는 미리 계획한 대로 군복을 벗어 파묻고 멕시코인으로 변장하였다. 판초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시 **멕시코시티로 돌아와 유카탄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이름도 스페인 식으로 바꾸었다. 돈 카를로스 조르지오. 그럴듯한 이름으로 메리다에 집을 산 후, 스페인인의 피가 16분의 1 섞인 메스티조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메넴이었다(129).

메넴 아버지에 대한 기술 중,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은 멕시코시티와 유카탄의 기차여행이다. 멕시코에 철도부설계획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1837년이다. 당시 멕시코만의 베라크루스 항구와 멕시코시티 간에 철도를 놓자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864년 막시밀리아노 시대(1863-1867)이며, 완공된 것은 그보다 9년 늦은 1873년 레르도 정권 치하이다. 따라서 막시밀리아노 죽음 직후인 1867년 혹은 1868년에 메넴의 아버지가 **멕시코시티에서 유카탄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카를로스 메넴은 농장경영보다는 정치에 뜻이 있던 인물이다. 그는 ‘민주적 선거가 가능하다면 유카탄 주지사에 도전할 생각이 있었으며 먼지만 폴폴 날리는 유카탄의 황무지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인물이다.’(131). 그는 디아스와 그의 과학자그룹의 행태에 깊은 반감을 가진 반독재자 그룹인 아킬레스 세르단의 ‘빛과 진보’ 모임의 일원이었다. 자비로운 농장주를 자처하던 그는 조장윤을 위시한 조선 노동자들이 ‘사람대접을 해주고 옥수수과 토르티야 같은 주식을 농장주가 부담하라’고 주장하자 그들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였다. 그는 소소한 식비를 부담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소출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상당히 자본주의가적 발상을 가진 인물이었다. 두 번째의 파업에서 그는 조선의 파업자들에게 2년을 일한다면 일정액을 내놓으면 농장에서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을 건다. 그의 조기해방의 약속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킬레스 세르단의 편지를 받고 11월 18일에 푸에블라에 도착한 메넴은 세르단에게 벌어진 일을 확인한 후, 마테로를 만나기 위해

샌안토니오로 향한다. 그곳에서 마테로를 만난 메넴은 자신이 마치 세르단 저택에 있었던 것처럼 울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테로는 ‘텔레파시를 믿으시오? [...] 나는 어제 세르단이 내게 보내온 텔레파시를 분명히 읽었소. [...]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소. 어렸을 적 나는 한 점쟁이에게서 멕시코의 대통령이 되리라는 계시를 받았소. [...] 지금 그 계시가 텔레파시가 되어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소.’(248-249)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말로 응대한다.

코아우일라의 농장주 아들이었던 마테로는 프랑스 유학시절 프랑스 심령주의의 창시자인 알란 카르텍(Allan Kardec)의 무덤을 찾은 정도로 심령주의에 심취했다. 특히 프랑스의 심령주의는 과학적인 성격이 농후한 심령주의였으며, 마테로는 스스로를 영매로 생각했다. 따라서 스스로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간주했으며, 이로 인해 극히 자연스럽게 메넴 앞에서 아킬레스 세르단과의 텔레파시 교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테로는 버클리 유학시절에는 신지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므로 신비적 체험이나 계시를 중시했다. 그러나 마테로의 이러한 심령주의적·신지주의적 태도에 실망한 메넴은 유카탄 농장으로 낙향하고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재산을 잃고 후에 여러 번 유카탄 주지사에 출마했으나 알바라도 주지사에게 패했다. 말년에는 과달라하라 지역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종교에 귀의했고,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다.’(318-319) 결국 그도 무로 돌아감으로 인해 과테말라 밀림에서 꿈꾸듯이 단명의 신생국가를 설립하고 죽어간 조선인 용병들과 유사한 결말을 맞는다.

신대륙 정복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가톨릭 전파였다. 16세기의 유럽 각국이 종교개혁의 열풍에 휩싸인 반면, 스페인에서는 이에 반기를 든 반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며, 16세기 중엽에 스페인에서 결성된 예수회는 가톨릭 전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프란시스코회, 야구스틴회, 도미니카노회와 더불어 신대륙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였다. 신대륙 선교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신부처럼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문화

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원주민의 신앙을 우상숭배로 간주하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제로 개종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부에나비스타 농장주 이그나시오 벨라스케스의 조상 호세 벨라스케스는 후자에 속한다. 예수회 수도사로 멕시코에 온 그는 아즈텍 인디오들의 가톨릭 신앙이 전통적 샤머니즘과 접목된 것임을 알고 사설군대를 조직해서 이들 마을에 쳐들어가 우상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들과의 싸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수도사를 그만두고 예수회보다 더 강력한 사설군대를 조직해서 아즈텍 인디오들을 공격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많은 사생아를 두었고, 이들의 후예 역시 많았다. 이그나시오 벨라스케스는 자신이 호세의 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손들과 싸워 호세의 총들을 차지했다. 예수회 수도사 출신 조상의 뜻을 좇아 그의 생활은 철저하게 종교적이었다.

부에나비스타 농장과 작은 은행까지 소유한 그는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자기 저택 한쪽에 마련된 작은 기도실로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 후에는 거실에 걸린 장총들, 우상숭배를 타파하던 총들을 닦았다. [...] 반종교개혁과 미신탈파를 가문의 신성한 사명으로 믿고 있는 이 파계 수도사의 후손이 제 농장의 몇 안 되는 조선인들을 완전히 개종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156).

그는 농장의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미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으며,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이들에게는 급료를 인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종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사로잡혀 처형당하며 그의 부에나비스타 농장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대낮에도 해를 가린다는 박수무당의 예언처럼 주지사의 명에 따라 화마에 휩싸인다. 이그나시오 역시 자신의 구세주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세상에 종말을 고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소설 속의 농장주들은 출세지향적인 배금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과 맹신적 가톨릭 신봉자로 설정되어 있다. 비록 메넴의 조상을 설명하

는 부분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추구했던 ‘황금과 영광’을 20세기에 구현하는 인물들로, 혁명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모든 것을 잃게 됨으로써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져 살아간 인물들이다. 조선이주민들의 지배자였던 이들이 ‘검은 꽃’을 찾아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으나 결국 그 꽃은 존재하지 않는 색깔의 꽃임을 확인하고 과테말라 밀림에서 죽어간 조선인들처럼 무로 돌아간다는 설정은 상당히 묵시론적인 결말이다.

#### IV. 결론

낭만주의 시대에 월터 스코트에 의해 시작된 역사소설은 사용 가능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현대 역사소설은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역사소설과 동일하나, 동시에 작가의 상상을 통해 역사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김영하의 『검은 꽃』은 후자에 속한다.

이 소설에 기술된 역사적 사건은 사실(史實)에 상당히 부합한다. 실제로 멕시코 이주 조선인 가운데에는 양반, 군인, 부랑아, 어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있었으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들을 에워싼 시대적 사건 역시 1905년 이전의 주요한 사건 혹은 사실을 기초로 구성된다. 일례로 주인공 김이정은 동학란의 희생자이며, 조장윤을 위시한 군인들이 일본의 식민지 야욕으로 군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고, 말레이시아 페낭신학교에서 신품성사를 받은 신부 박광수와 같은 인물들은 고증이 가능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이다. 멕시코의 역사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며 정확하다. 마야역사, 식민지시대, 공화국시대를 지나 포르피리아토 기간의 상황, 멕시코 혁명의 원인·과정은 실제 역사에 부합한다. 또한 유카탄의 농장주로 맹신적 예수회 신부의 후예, 처세술에 능한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유럽인의 후예로 설정

한 부분 역시 사실과 같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는 한국의 역사에서는 12년의 시차가 있는 동학란과 임오군란을 동일한 시대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 8대 교구장과 9대 교구장의 행적이 동일한 인물의 행적으로 기술되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에서는 압제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된 카스타전쟁을 독립전쟁으로 간주하고, 이 전쟁이 1848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에 정점에 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농장의 대지주가 교회의 신부가 가진 세례와 결혼, 장례에 대해 권한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점, 철도부설연도 등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실존인물과 가공인물은 동시대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멕시코 혁명에 참여한 이들, 과테말라 반정부 게릴라부대에 용병으로 참여한 이들, 비록 호구대책이었기는 하나 예수회 수도사의 후예와 함께 가톨릭 수호를 위해 죽은 이 등등, 이들 모두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의 역사까지 자신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수용한 경우다.

## Abstract

*La Flor Negra* de Young-ha Kim es una novela histórica que narra la vida de más de mil coreanos que se fueron a México en 1905 en busca de la fortuna. Los principales espacios de la novela son Corea, México y Guatemala. El tiempo abarca los años anteriores y posteriores de 1905. Los sucesos históricos son desde la década 80 del siglo XIX hasta el año 1910; mientras que los de México son desde la cultura maya hasta la década 20 del siglo XX.

En esta novela figuran los hechos históricos como la Rebelión Donghak de los Campesinos, la guerra ruso-japonesa, el imperialismo japonés, la historia de la iglesia católica en Corea; y de parte de México, la historia de la cultura maya, el milagro de la Virgen de Guadalupe, la época republicana, el Porfiriato y la Revolución Mexicana. Los nombres de los personajes reales también aparecen en esta historia novelada.

En el plano de la ficción figuran los personajes creados por el autor. Los coreanos que llegaron a México se ven obligados a aceptar la realidad mexicana y algunos hasta participan activamente en los hechos históricos de México. Los hacendados mexicanos son descendientes de los europeos, y siguen representando los valores de la época de la conquista: ‘Gloria y Religión’.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para ver la historicidad de la novela y en qué forma están fusionados lo real y lo irreal.

Key Words: Novela histórica, Inmigrantes coreanos, México, Hacienda, Revolución Mexicana / 역사소설, 한국이주민, 멕시코, 농장, 멕시코혁명

논문투고일자: 2009. 12. 30

심사완료일자: 2010. 02. 04

게재확정일자: 2010. 02. 04

## 참고문헌

- 김영하(2004), 『검은 꽃』, 문학동네.
- 루카치, 게오르그(1987), 『역사소설론』, 이영옥 옮김, 거름.
- 뫼텔(2009), 『뫼텔 주교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 이필규(2003), 「역사와 현대의 공시적(synchronical)구조: 김영하의 장편소설 『검은 꽃』」, 제3의 문학, Vol. 4, No. 3, pp. 54-64.
- 정호웅(2007),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 화이트, 헤이든(1991),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 메타역사』, 천형균 옮김, 문학과 지성사.
- Ancona, Eligio(1889), *Historia de Yucatán desde la época más remota hasta nuestros días*, M. Heredia Argüelles.
- Avilés, René(2005), “Revolución mexicana en torno a Yucatán - México y Corea: dos naciones que se unen,” *Revista Asia y América*, Vol. 5, No. 2, pp. 207-224.
- Casco, Rosario(2005), “Situación política y económica de México a principios del siglo XX: Hacienda desde su origen hasta el principio del siglo XX,” *Revista Asia y América*, Vol. 5, No. 2, pp. 83-100.
- Comisión Nacional para las Celebraciones del 175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Nacional y 75 Aniversario de la Revolución Mexicana(1985), *Los hermanos Serdán. Serie de Cuadernos Conmemorativos*, No. 50, Instituto Nacional de Estudios Históricos de la Revolución Mexicana.
- Davenport, Laura(2006), “Las Testigos, La Historicidad en las Novelas de Isabel Allende, Laura Restrepo y Angeles Mastreta,” *Chrestomathy, Annual Review of Undergraduate Research*,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hool of Languages, Cultures, and World Affairs, College of Charleston, Vol. 5, pp. 98-128.

- Icaza, Jorge(1965), *Huasipungo*, Losada.
- Kenneth Turner, John(1908), *México bárbaro*, e-book, [http://www.antorcha.net/biblioteca\\_virtual/historia/turner/indice.html](http://www.antorcha.net/biblioteca_virtual/historia/turner/indice.html)
- Nelson, Reed(1971), *La guerra de castas de Yucatan*, ERA.
- Orel, Harold(1995), *The Historical Novel from Scott to Sabatini*, St. Martin's Press.
- Padilla, Raquel(2005), "Jornaleros agrícolas en las haciendas henequeneras de Yucatán," *Revista Asia y América*, Vol. 5, No. 2, pp. 133-148.
- Pulgarín, Amalia(1995), *Metaficción Historiográfica*, Espiral Hispano Americana.
- Romera, J., F. Gutiérrez y M. García-Page(1996), *La novela histórica a finales del siglo XX*, Madrid: Visor Libros.
- Zamora, Lois Parkinson(1993), *Writing the Apocalyp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909\\_196/Convocatoria\\_para\\_Asamblea\\_del\\_Club\\_Antirreeleccio\\_1454.shtml](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909_196/Convocatoria_para_Asamblea_del_Club_Antirreeleccio_1454.shtml)